

■ 설교 -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

복 받으라는 말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고, 듣기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복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을 주는 주어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인 여호와께서 복을 허락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복입니다.

여기서 지키다 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하여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와 백성들을 항상 살펴 보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 세상의 우리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수 없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는 복을 누리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은 줄수 없는 사랑과 소망을 가지는 복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거저 주는 것 곧 선물을 뜻합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써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올 한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소망이 넘치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음과 생각과 삶속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입니다.

평강은 살롬을 이야기 합니다. 이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기쁨과 환희가 솟아 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삶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삶속에서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2023년 계묘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2023

설교

- 가정예배순서지 -

2023년 1월 22일(주일)

■ 2023 설날 가정예배 ■

예배의 부름 인도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23:1~3)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설날을 통하여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삼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명절에 가족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며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예배 지침 : 가족 중 어른 한분께서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성경봉독 민수기 6:22~27 다같이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 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 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설 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인도자

헌 금 다같이

찬 송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